

공동체 소식

성탄시기

- Merry Christmas! 성탄시기는 예수성탄대축일(12월25일)부터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이 구세주를 통해 이 세상에서 시작됐음을 알리는 주님공현대축일(1월 2일과 8일 사이 주일)과, 주님공현대축일부터 주님세례축일(공현대축일 다음 첫 주일)까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성탄시기는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하면서 요르단 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 받은 것을 기념하는 주님세례축일로 막을 내립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 경배드리며 주님 마음에 드는 신앙인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 본당 2020년 달력은 원하시는만큼 가져가시면 됩니다.

성탄시기 미사 안내

- 29일(일) 오전 11시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가정축복)

- 1월 1일(수) 오전 11시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 1월 5일(일) 오전 11시 주님 공헌 대축일

- ACTS에 참여하실 분들은 본당에 준비된 봉투를 이용해서 주시면 모아서 발송하겠습니다.

*1월 신심미사 없습니다.

신앙생활봉헌서 제출 안내

- 신앙생활봉헌서 작성하신 후 미사 봉헌때나 본당신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 구역/반에서도 공지해 주십시오.

교무금 안내

- 매월 교무금은 의무입니다.

- 모든 가정에서 추가로 한 달분이상 교무금을 감사헌금으로 봉헌해 주십시오. 감사헌금 봉헌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교무금 책정시 십일조의 정신을 살려 봉헌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오로딸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 학생모집

- 과정: 입문/중급/성바오로 신학영성 중 선택

- 방법: 우편과 이리닝(동영상강의) 성경공부

- 원서: <http://uus.pauline.or.kr>

- 문의: 2020.1.31마감, 02-944-0819~24, 010-5584-8945

가톨릭교리신학원 신입생모집

- 2020학년도 통신으로 배우는 신학과정

- 원서접수 마감 : 2020.02.07(금)

- 포스터 및 리플렛 참조

제의(chasuble)

- 본당 제의 구입을 위한 donation 받습니다.

(흰색,녹색,홍색,자색,분홍색)

- 접수 : 전례부

성탄 준비 감사합니다.

- 꽃 봉헌 감사합니다. (\$320)

꽃 봉헌자 : 김화년(요안나), 이영민(엘리사벳), 정석원(라파엘), 김명희(리드비나), 이경남(마리아), 박명숙(비르짓다), 김경돌(수산나), 김말자(세실리아), 정연숙(막달레나), 조지연(마리아), 박계숙(헬레나)

- 평협회장/총무님의 성탄 구유 준비와 성탄예술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 전례부, 성가대, 복사단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성탄예술제 참가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 1월 구역/반모임 안내

- 1구역 5일(일) 오후1시 정석원 라파엘 가정

- 3구역 17일(금) 저녁7시 고영방 스테파노 가정

- 4구역1반 10일(금) 저녁7시 김주연 세실리아 가정

- 4구역2반 31일(금) 저녁7시 차호섭 요셉 가정

- 2구역 미정

교무금 자동이체 안내

- 교무금 자동이체를 원하시는 분은 재무부장(차장)통해 필요한 정보를 받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전례 상식

- 주일헌금은 자선행위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 무엇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일주일간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주시는 은혜에 다시 내가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 행위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정성을 보시는 것입니다.**

- 성당의 중심은 제대입니다. 또한 중앙통로는 전례때에 주로 사용합니다. 제단에 드나들거나 제대 앞을 지나는 이는 모두 제대에 깊은 절을 해야 합니다(주교예절서 72항 참조). 독서자는 독서대에 오르기 전에 미사 전례의 중심인 제대를 향하여 절을 합니다.

- 독서자 모집합니다. 전례부에 문의 바랍니다.

전례 성가

	입 당	예 물	성 체	파 견
금 주	113	219	178	113
1/1(수)	239	210	153	249
차 주	100	212	154	487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김주연 세실리아	김병철 베네딕도	김경희 스킨라스티카
1/1(수)	김명은 안젤라	문석찬 요셉	백문주 엘리사벳
차 주	박태주 로마노	홍순익 마르티노	최은미 아녜스

미사 복사

	시중복사 1	시중복사2
금 주	김정원 안젤라 김정훈 로베르토	강윤후 그레고리오 강미정 클라우디아
1/1(수)	차민서 임마누엘 김정빈 바오로	김하울 루카 김가온 토마스
차 주	정예찬 미카엘 김지안 요한	차한나 가브리엘라 강윤후 그레고리오

헌금 봉사자

금 주	홍순익 마르티노, 김동술 요한
1/1(수)	감영진 라파엘, 김태중 예레미아
차 주	김병철 베네딕도, 강승호 아오스딩

애찬 봉사자

금 주	7조: 김경희, 김인자, 안혜진
1/1(수)	평협회원, 봉사자
차 주	8조: 김민영, 천주영, 조한희

천주교 캔사스대교구 복자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한인성당
Blessed Jeong, YakJong Augustine Korean Catholic Community

천주교 캔사스대교구 한인성당

복자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한인성당

Blessed Jeong, YakJong Augustine Korean Catholic Community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www.kkcatholic.org

주임신부 박종수 펠릭스
korean1481@gmail.com

회장 고영방 스테파노
(913) 227-9040

총무 박태주 로마노
(610) 212-9539

유아세례: 전례부에 신청

주일학교: 주일오전10시
나자렛관

오늘의 전례

오늘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온갖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느님을 향한 오롯한 믿음을 간직하는 가정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올 한 해의 마지막 주일 미사를 봉헌하는 오늘은 '가정 성화 주간'을 시작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각자의 가정을 주님께 봉헌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가정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그림 묵상

성가정

마리아와 요셉은 어린 예수님을 가운데 모시고 항상 주님의 뜻을 따르며 지내신 성스러운 가정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모든 것을 바라고, 믿고, 견뎌 내시어 거룩한 성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 표징이 세상 위에 찬란히 빛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을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아파하고 고민합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정미연 소화데레사 | 화가

제 1 독서 : 집회 3,2-6.12-14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아버지를 공경한다.>

화 답 송 :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네 손으로 벌어 네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

○ 너의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너의 밥상에 둘러앉은 아들들은

올리브 나무 햇순 같구나. ◎

○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변영을 보리라. ◎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 3,12-21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생활>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

복 음 : 마태오 2,13-15.19-23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생명의 말씀

성가정 되소서



한국에서 사제 생활을 하면서 가장 저를 무안하고도 쑥스럽게 하는 인사말은 바로 '신부님, 성인(聖人) 사제 되세요'였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성인이 될 수 있단지요?'라고 속으로 반문하며 한사코 손사래를 치곤했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의 이러한 인사말이 한국에서만 존재하리라 생각한 것은 저의 큰 오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과테말라의 본당에서도 가끔 신자들이 '신부님, 성인 사제 되세요'라는 똑같은 인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화끈 거리는 마음을 달래며 한사코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보니, 신자들이 바라는 사제상을 거부한 참으로 교만한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한국이나 과테말라나 모든 신자들은 사제들이 성인들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을 닮은 착한 목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인데, 제가 그 깊은 속뜻을 헤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득 '왜 사제만 성인이 되라 하시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덕의 삶은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초대입니다. 물론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시복과 시성을 통해 가톨릭교회의 성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도 어려운 절차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우리의 삶이 거룩하신 가톨릭교회의 성인들의 발끝에도 못 미침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분들의 모범과 거룩한 삶을 따라 하루하루 성화하며 살아가려는 우리들의 노력마저 내려놓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가톨릭교회가 기념하는 성가정 축일은 가정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큰 의미가 있는 축일입니다. 교회의 기초인 가정이 거룩하게 성화된다면 그것이 바로 성가정입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께서 말씀하듯이 '가정 안에서 서로 참아주고 용서해 주며,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고 평화가 우리 가정을 다스리게 내어 맡긴다면', 분명 우리 가정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머무르는 성가정이 되고, 성가정은 성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지향을 마음에 두고, 그동안 신부님들에게만 드렸던 특별한 인사말과 기도를 이제 우리들도 서로서로 '성가정 이루세요'라고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모든 사제들이 성인 사제

처럼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신자들의 마음처럼, 저도 모든 신자들이 "하느님께 선택된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답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정과 호의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입고"(골로 3,12) 성가정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성모님, 성 요셉처럼 모두 '성가정 되소서.'

김현진 토마스데아퀴노 신부 | 해외선교(과테말라)

그림으로 보는 복음묵상

물음표와 느낌표



사랑도

가정도

신앙도

모두 모두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어가는 방법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루카 2,51)

임의준 신부 | 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

말씀의 이삭

가슴으로 기억하는 인연



제가 아우구스틴 신부님을 만나게 된 것은 한 지인으로 부터 시골의 가난한 고산족 원주민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현지 신부님이 계시니 도움을 드렸으면 한다는 부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신부님은 수도회에 입회하시기 전부터 이미 '의사'이셨는데 나라가 공산화되면서 많은 사제와 수도자들이 박해를 못 견디고 세속으로 돌아갔지만 끝까지 남아서 신자들과 공동체를 지키신 분이십니다.

제가 신부님을 만났을 당시에 이미 나병 환자와 에이즈 환자 진료, 가난한 학생들의 그룹 홈, 고산족 원주민들을 위한 재가 복지 사업 등 많은 일을 하고 계셨고 함께 곳곳을 방문하고 또 대화를 나누면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시는 신부님의 모습에 같은 수도자, 사제로서 그분 앞의 제가 한없이 작아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연이 되어 정기적으로 도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재작년 오랜만에 신부님을 뵈었을 때 같은 공동체 식구로부터 신부님께서 현재 암 말기로 치료도 수술도 불가능한 상태로 본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신부님께선 끝까지 그 사실을 제게 말하지 않았고 저 또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항에서 작별을 할 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이 든 동양 남자끼리는 전혀 어울리지 않지만, 신부님을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그곳에서 돌아온 후 감사하게도 제주교구 빈첸시오 연합회의 도움으로 적지 않은 금액을 후원해 드릴 수 있었고 신부님께 감사하다는 이 메일을 받았는데, 그것이 신부님께 드린 마

지막 선물이 되었고 신부님으로부터 받은 마지막 메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에 다시 그곳을 방문했을 때 신부님께서 살아생전 일하시던 곳 중의 하나인 에이즈 환자 진료소 한쪽 벽에 신부님의 사진이 걸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직원께서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신부님께서 헌신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받는 이들을 위해 일하셨기에 그분을 기억하기 위해 사진을 걸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신부님은 눈에 보이는 사진만이 아니라 이미 그곳 사람들의 가슴에 잊혀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아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릴 적 동네 친구, 학교 친구 선후배, 직장 동료 등. 하지만 그중에서 정말로 내 가슴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지는 사람, 눈가가 축축이 젖어오는 사람, 언제라도 좋으니 꼭 다시 한번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인연은 머리로 기억하고 어떤 인연은 가슴으로 기억합니다. 올 한해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 중 내가 가슴으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몇이나 되는지요? 또한 나를 가슴으로 기억하고 있을 사람들은 과연 몇이나 되는지요? (아직도 박해가 있는 곳이라 혹시라도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입을까 봐 '나라 이름'과 '지역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양상윤 빈첸시오 신부 |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 전교회 (중화관구)



▣ 미사 후 뒷정리에 함께 하는 아름다운 손을 하느님께서 기다리십니다.

- 1월 5일 주일 성당/지하식당 청소합니다.(구역)
- 매 주일미사 후 간단하게 뒷정리 합니다.
- 청소 담당은 편의상 구역을 나뉘어 많은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